



tvN '미생'·'비밀의 숲'·'시그널'(왼쪽부터) 등이 탄탄한 스토리로 해외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제공 | tvN

K드라마, 전세계 집돌이·집순이 사로잡다

佛 매거진, 미생·킹덤 등 20편 선정
IMDB 평점·투표수 바탕 순위 매겨
온라인 '테일러'도 비밀의 숲 등 11편
뉴스위크 日판, 영화 포함 50편 선정

해외 매체들이 잇따라 '꼭 봐야 할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며 '케이(K)드라마'의 위상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다양한 장르에 걸친 한국드라마를 적게는 11편부터 많게는 50편까지 평가하며 그 작품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1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전문 매거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봐야 할 20편의 한국드라마를 소개했다. 세계 최대의 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IM

DB의 평점과 투표수를 바탕 삼아 한국 드라마의 순위를 매겨 보도했다. '더어 마이 프렌즈'를 비롯해 '태양의 후예' '슬기로운 의사생활' '미생' '킹덤' 시리즈, '비밀의 숲' 시리즈, '사랑의 불시착' '미스터 션샤인' 등이 목록에 올랐다. '응답하라 1988'과 '나의 아저씨' 등도 포함됐다.

또 아시아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어권 온라인 매체 '테일러'도 11편의 한국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 전세계 영어권 누리꾼을 독자로 둔 매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매체는 '2021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한국드라마 11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랑의 불시착'을 포함해 '사이코지만 괜찮아' '비밀의 숲' 시즌2 등을 꼽았다.

이에 앞서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뉴스

위크 일본판도 한국드라마와 영화에 관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다룬 특집판을 이달 초 내놓기도 했다. 드라마 '여신강림'의 주연이자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차은우를 표지인물로 내세운 매체는 '꼭 봐야 할 한국드라마와 영화' 50편을 소개했다.

이처럼 해외 유력 매체들의 한국드라마에 대한 잇단 관심은 현재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새삼 환기시킨다. 실제로 16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순위 사이트인 플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빈센조'가 넷플릭스의 '전 세계 많이 본 드라마' 6위에 올라 있다. 앞서 '사랑의 불시착' 등이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에 소개된 현지 한류팬을 제쳤으며 1위에 오르는 등 한국드라마의 위상

이 크게 높아졌다. 연기자들의 매력, 다채로운 장르를 통해 펼쳐내는 보편적인 소재와 스토리, 과감한 제작 투자와 스케일 등이 그 힘으로 꼽힌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이른바 '집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플랫폼의 변화가 몰고 온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테일러' 보도 내용을 소개한 한국국립문화교류진흥원 박지은 미국 LA총신원은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 연예계가 콘텐츠 제작 문제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도 "한국드라마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많은 드라마가 넷플릭스 등에 진출해 높은 시청률을 누리고 있다"고 썼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5인조 걸그룹 있지가 최근 발매한 미니 음반 '게스 후'의 타이틀곡 '마.피.아 인 더 모닝'을 통해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제공 | JYP엔터테인먼트

빌보드 차트에 '있지'가 있지... '리릭 비디오'는 8571만뷰

〈마.피.아. 인 더 모닝〉 영어 버전

미니음반 '게스 후' 빌보드 200 148위
최대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 56위

'4세대 걸그룹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5인조 걸그룹 있지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있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니음반 '게스 후(GUESS WHO)'를 통해 국내 각종 음원차트 점령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15일자)인 '빌보드200'과 또 다른 메인차트인 '아티스트 100'에서 각각 148위와 99위 기록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국내 여성 가수로 블랙핑크, 보아, 투에니원, 소녀시대, 트와이스, 이달의 소녀에 이어 일곱 번째 진입이다.

데뷔 2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특히 이들의 성과 가운데 가장 돋보인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타이틀곡 '마.피.아. 인 더 모닝'도 세계 최대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56위(3일 기준)에 오르는 등 앨범뿐만 아니라 음원 역시 흥행 중이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 등으로 팬들 사이에서는 '마며들다(마피아가 스며들다)'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다.

있지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최근 타이틀곡을 영어 버전으로 발매하고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14일부터 이틀에 걸쳐 '마.피.아. 인 더 모닝' 영어 버전과 영어 가사를 바탕으로 만든 리릭 비디오(lyric video),

이 노래를 부르는 무대 영상 등을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차례로 공개했다. 이 곡은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을 비롯해 라라, 이어아택, 캐시, 이해솔, 당케 등 국내외 유명 작곡가와 소피아 등이 영어 가사를 완성했다.

리릭 비디오는 '자신의 감정을 베일에 가린 채 다가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았다'는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의 영어 가사와 한 편의 서스펜스를 떠올리는 영상미가 돋보인다.

덕분에 뮤직비디오는 물론 리릭 비디오 뮤직비디오는 시너지 내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16일 오후 현재 뮤직비디오는 공개 2주 만에 8571만 뷰를, 리릭 비디오 뮤직비디오는 150만 뷰를 달성했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

책 예능...공감을 얻다

'대화의 희열' '워크맨' 등 소개책 인기

화면을 수놓는 스타들의 대화들과 서정적인 풍경이 고스란히 책에 옮겨진다. 최근 KBS 2TV '대화의 희열', 카카오톡TV '밤을 걷는 밤', 유튜브 콘텐츠 '워크맨'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이 책으로 재탄생해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드라마의 대본을 엮어서 만든 대본집이 발간된 적은 많지만, 매회 출연자와 주제가 달라지는 예능프로그램이 책으로 기획되는 것은 색다른 시도다.

책 '사는 게 정답이 있으려나?'는 가수 배철수·아이유·지코, 소프라노 조수미, 개구먼 김숙 등 2018년과 2019년 '대화의 희열' 시즌1·2에 등장한 11명의 출연자가 나눈 대화를 담았다. 아이유·조수미 등 출연자들이 방송에서 편집 등으로 미처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들을 추가로 더한 덕분에 구성이나 재미 등이 풍성하다. 출연자들의 인세는 아동학대피해예방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책을 내놓은 출판사 포르체에 따르면 12일 판매를 시작해 벌써 중쇄를 논의하고 있다.

'밤을 걷는 밤'과 '워크맨'도 각각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밤을 걷는 밤'은 가수 유희열이 서울 곳곳의 산책길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만든 책이다. 산책길의 고즈넉한 풍경을 사진과 일러스트로 담았다. 방송에 등장한 유희열의 감성 어린 말들도 편집돼 실렸다. '워크맨'은 장성규가 수산시장 상인·놀이동산 직원·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일일 체험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코믹한 방송 장면도 곳곳에 삽입해 생동감 있게 구성했다.

'사는 게 정답이 있으려나?'를 기획한 박영미 포르체 대표는 16일 "각 프로그램들은 영상과 텍스트를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는 확실한 주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인생이나 직업 등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예능프로그램들이 늘고 있어 관련 서적의 인기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제이윤 장례 절차...동료들 추모 이어져



제이윤 최은 39세의 일기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그를 엠씨더맥스 제이윤(윤재웅)의 장례식이 16일부터 시작돼 연예계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소속사 325이엔씨는 "해외 체류 중인 유족의 입국 시기에 맞춰 장례 절차를 시작했다"며 "팬들을 위해 17일까지 서울시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13호에 별도의 조문 공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제이윤은 13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수 자두·방송인 홍석천·연기자 허정민·러블리즈 진 등은 SNS를 통해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워하겠다"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서영춘 아들' 서동균, 비연예인과 결혼



원로 코미디언 고 서영춘의 아들이자 개그맨 겸 배우 서동균이 결혼했다. 서동균은 15일 10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임하룡·김학래·김수용·박성호·박준형 등 개그맨 선우배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KBS 공채 13기 개그맨 동기인 박준형은 16일 SNS를 통해 "우리 동기 마지막 한 남자가 드디어 갔다. 목은 청소를 끝낸 기분일까"며 코믹한 축하 인사와 함께 결혼식 현장 사진들을 공개했다. 서동균은 1997년 데뷔해 KBS 2TV '개그콘서트'의 코너 '로보캡'으로 인기를 얻었다.

김정현, 소속사와 전속계약 갈등 원만한 합의



연기자 김정현이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은 소속사와 원만히 합의했다. 김정현 측은 최근 공식입장을 통해 "오앤엔터테인먼트 대표자와 김정현의 대리인인 그의 친형이 14일 직접 만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며 "원계약서대로 오앤엔터테인먼트와 김정현이 맺은 전속계약 효력이 11일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김정현이 2018년 드라마 '시간'을 끝낸 이후 겪은 11개월 공백을 전속계약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BTS, '프렌즈' 원년멤버 특별편 토크쇼에 출연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 원년 멤버들이 17년 만에 선보이는 특별편에 나선다. 최근 빌보드 등 최신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27일 HBO 맥스에서 공개되는 '프렌즈:더 리유니언'에 출연한다. 저스틴 비버·레이디 가가 등 세계적 팝스타들도 출연자에 포함됐다. '프렌즈:더 리유니언'은 90년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시트콤 '프렌즈'의 원년 멤버인 제니퍼 애니스톤, 코트니 콕스 등이 다시 모인 특별편이다. 방탄소년단은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로 초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즈원 출신 사쿠라, 한국 활동 모색



그룹 아이즈원 출신 미야와키 사쿠라가 기존 일본 소속 그룹에서 떠나 한국 활동을 모색한다. 15일 미야와키 사쿠라는 일본 후쿠오카 HKT48 극장에서 열린 HKT48 14번째 싱글 '너와 어디론가 가고 싶어'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6월19일 졸업(탈퇴)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HKT48은 시작이자 언제나 마음속 소중한 곳"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미야와키 사쿠라는 그룹 AKB48 중시 멤버로 활약하다 2018년 앨범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로 아이즈원으로 데뷔해 지난달 28일까지 활동했다.